영재교육연구 제 21 권 제 2 호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11. Vol 21. No 2, pp. 465~484

영재학생의 일반학급 및 영재교육기관에서의 학교생활만족도

조 성 신 유 미 현 여 상 인
마북초등학교 아주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학생, 영재학급 영재학생, 영재교육원 영재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와, 영재학생이 영재학급과 일반학급에서의 느끼는 학교생활만족도를 각각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초등 영재학생 76명, 초등 일반학생 125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급,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학생의 일반학급에서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급 영재학생의 일반학급 학교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재교육원 영재학생, 일반학급 학생 순으로 학교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영재교육기관이 다른 영재학생의 소속 영재교육기관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영재학급의 학생이 영재교육원 학생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셋째, 영재학생의 일반학급에서의 생활만족도와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넷째, 영재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는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학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주제어: 학교생활만족도, 일반학급, 일반학생, 영재학생,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I. 서 론

오늘날 세계는 급속한 정보화·세계화의 발전추세에 따라 개개인의 삶의 양식이 바뀌는 등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교육이 곧 힘이며 국가 경쟁력이 되므로 각 분야의 우수한 영재들을 길러내기 위해 이론적 정책적 연구를 수행하며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영재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영재를 발굴, 육성하는데 주력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적, 교육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영재교육 필요성에 따라 2000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02년

교신저자: 유미현(ymh0120@ajou.ac.kr)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그 동안 영재교육은 많은 양적 확대를 이루었으나 영재교육의 주체이자 수요자인 영재학생들이 얼마나 영재교육에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편이었다.

영재는 그들의 특성으로 인해 공교육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교육과 더불어 특별히 요구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영재는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재능이 키워질 수 있는 환경과 동시에 일반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 속에서 살아가므로 영재는 학교라는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는지, 또래 학생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고, 자신의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발달 과업을 지니게 된다(윤여홍, 2003). Kagan & Havreven (1978)에 의하면 영재성은 유전적 요인만이 아니라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감정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학교라는 환경 속의 요인의 아동의 학교생활만족과 관련이 있고(김무겸, 2004),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재아동이 특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 또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며,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영재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초등학생에 있어서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학생들은 그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생활양식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 일반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영재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생활은 또 하나의 학교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생활의 핵심요소를 학교환경, 학습,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라고 볼 때 이러한 요소들은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생활을 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또래 집단을 형성하여 그 안에 소속함으로써 안정을 찾고 집단의 가치와 행동 양식을 공유하게 된다.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교우간의 관계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간으로 대우받고 자존감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학교생활은 학생들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영재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들을 조사, 분석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알아보고 그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해소하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영재에 대한 효율적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의 인지적 수준뿐 아니라 자아개념, 사회적 능력, 학교생활 만족 등의 정의적 측면의 이해가 필요하다(이원령과 이순복, 2008). 그 동안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다양한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일반 학교, 일반 학급에 대한 생활 만족도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재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임형철, 1992)에 의하면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영재가 학교에 가장 잘 적응하고 영재아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든 변인에서 잘 적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영재아의 학교를 다니는 태도는 바람직하나 학교생활을 즐겁게 느끼지 못하고 교사와의 관계는 원만하나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교사의 역할이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은주, 2003)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영재학

생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영재교사 관련 영역에서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주관적 안녕감이 향상되고 부정적인 경험은 감소된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Huebner (2010)에 의하면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 분위기, 학교 활동 참여, 학업 성취도 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학교생활만족도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다. 상위 영재학생의 생활만족도가 학생들의 경험과 심리적 특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조사한 Boazman & Sayler (2011)의 연구에 의하면 행복감, 삶에서의 성취감, 자신감 등은 긍정적 성격을 발달시키는 요인이며 이러한 긍정적 성격은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연구 대상 영재학생들은 또래 학생보다 그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더 많이 표현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인생에서의 성공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 있는 두 가지 요소인 자아 효능감과 진지함에 있어서 매우 강렬한 정서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또,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업성취(Bean & Bradley, 1986) 등 교육관련 변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교육연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인이다. Brookover (1975)도 아동의 사회적 구조를 검토하는데 있어 아동이 느끼는 일반적인 만족감을 파악함으로써 학교생활개선에 도움을 주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긍정적인 느낌이나 감정 또는 태도의 정도'(김미경, 2000)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생활의 실제와 기대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 개인적 현상'(유상구, 2000)이라고 정의한다. 또, 학교생활만족도란 학교라는 환경적 공간에서 학생들이 교사, 또래집단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교육활동을 하는데 충분하가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적절한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물리적·심리적 환경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생활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학교환경,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로 볼 수 있다(강선희, 2008; 이은주, 2003; 황진숙, 1995).

현재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만족도 연구는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만족도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과 일반고등학교 학생간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김애희(2008)의 연구에 의하면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과 민족사관고 학생들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송강덕과 안정덕(2006)의 연구에서 영재학교 남학생 12%, 민사고 여학생 14% 정도가 현재의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영재아동의 자아개념과 사회적 능력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이원령과 이순복(2008)의 연구에 의하면 영재 학년 수준에 따른 자아개념, 사회적 능력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인적응성, 사교성, 일반자아, 일반교과목과 인기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2000년에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영재교육기관을 소수 정예의 전문 분양의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일제 정규 교육과정인 '영재학교'와 초·중·고에서 운영

되는 '영재학급', 그리고 교육청,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익 법인 등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영재교육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시도교육청 영재학급 580개,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원 226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39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과학영재교육원 25개와 교육청 지원 14개 기관이 포함된다(김미숙, 이희현, 임청묵, 2008). 이와 같이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대부분은 시도교육청 영재학급과 시도교육청 부설영재교육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영재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연구는 각 기관별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재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 과학고 부설 영재교육원에 선발되어 교육받고 있는 영재학생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홍정민(2009)의 연구에 의하면 소속된 영재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라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 능력·적성 발견,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등의 요인이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영재학생이 선발되어 교육받는 영재교육기관에 따라 학생들의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것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체제를 개선하는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초등학교 일반학생, 영재학급 영재학생, 영재교육원 영재학생들의 일반학급에서의 학교생활만족도를 파악하고 비교하고 더 나아가 소속된 영재교육기관이 다른 영재학생들의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재교육 담당 교사들과 학교 및 영재교육 행정가들의 학생을 지도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영재교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의 질 개선과 영재교육기관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성별, 학년에 따른 영재학생들의 영재교육기관 생활만족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만족도라 함은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도, 학업에 대한 만족도,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교우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4개 영역을 의미하며, 각각의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급,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학생이 느끼는 일반 학교생활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소속된 영재교육기관이 다른 영재학생의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생활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영재학생이 소속된 일반학급과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생활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또, 영재학생의 일반학급과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생활만족도 문항별 차이는 어떠한가?

넷째, 영재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생활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영재로 판별되어 경기도 지역 시도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영재 5~6학년 38명과 같은 지역 초등학교에 설립된 영재학급 초등영재 5~6학년 38명, 총 76명의 초등영재학생과 같은 지역 일반 초등학교의 일반학생 5~6학년 125명이다(<표 1> 참조).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더 많고, 영재학생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더 많은 특징이 있다.

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영재학생은 서류전형, 영재성검사, 면접과 같은 3단계의 절차로 논리적 사고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과학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등을 기준으로 선발되었다.

<표 1> 연구대상 구성

구분	영재교육원 영재학생 (*N*=38)		영재학급 영재학생 (*N*=38)		일반학생 (*N*=125)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
남	14	11	10	7	23	31
여	5	8	10	11	37	34
계	19	19	20	18	60	65

영재학급과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의 수업운영 및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영재학급에서는 주로 기초연수만을 이수한 초등교사가 주2회 연간 120시간이상 방과 후 및 방학을 이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에서는 영재관련 기초, 심화, 전문, 국외 연수 등 많은 연수를 이수한, 보다 경력이 많은 초등교사가 주 1회 연간 120시간 이상 방과 후 및 방학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방법에서는 영재학급과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이 외형적인 큰 차이 없이 유사하게 운영된다. 교육내용 측면에서도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모두 수학, 과학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5, 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하겠다.

<표 2> 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에서 영재 수업 운영과 내용

	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수업운영	• 학기 중 주1회 화요일 4시간수업	• 학기 중 주2회 목요일 3시간, 토요일 4시간
교육내용	• 수학과 과학(영어, 기타)	• 수학과 과학(영어, 기타)
학년편성	• 5학년, 6학년으로 학년 구분 편성	• 5학년, 6학년으로 학년 구분 편성
수업방법	• 실험 및 강의, 프로젝트 학습	• 실험 및 강의, 프로젝트 학습
지도교사	• 과학5명(기초5명, 심화3명, 해외2) • 수학4명(기초4명, 심화1명, 해외2명)	• 과학4명(기초4명) • 수학4명(기초4명)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영재학생 및 일반학생은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이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영재학생 및 일반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따른다.

2. 검사도구 및 자료분석

영재학생 및 일반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로는 임명숙(1997)이 사용한 초등학교 아동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조사 설문지를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일반학생, 영재학생 학교생활만족도 검사는 '학교환경 만족도', '학업에 대한 만족도',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교우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4개의 하위영역이며 Likert 5점 척도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구한 학교생활만족도 검사도구의 각 하위영역의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표 3>과 같이 .674~ .917이었다.

<표 3>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에 대한 신뢰도

영역	신뢰도(Cronbach's α)	
	일반 학생(N=125)	영재 학생(N=76)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	.817	.852
학업에 대한 만족	.674	.769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892	.917
교우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713	.771

일반학급, 영재학급, 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은 일원변량분석(ANOVA)으로 비교하였으며, Tukey의 사후 검증을 통하여 각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영재학생의 성별, 학년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생활만족도는 일원변량분석(ANOVA)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영재학생들이 일반학급에서와 영재교육기관에서의 각각 느끼는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는 동일 집단의 변수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 방법인 대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 t-test)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유의수준은 .05이며, 모든 데이터는 SPSS 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통한 양적 연구로 이루어졌으므로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조사를 심층면담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여 심층적 분석에 제한점이 따른다.

III. 연구의 결과 및 논의

1.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일반 학급에서의 학교생활만족도 비교

일반학생과 영재학급 및 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에 선발된 영재학생의 일반학급 학교생활만족도를 일원변량분석(ANOVA)을 통해 비교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일반학생, 영재학급학생, 영재교육원 학생의 일반학급에서의 학교생활만족도 비교

영역	일반학급에서 일반학생 (*N*=125)	일반학급에서 영재학급 학생 (*N*=38)	일반학급에서 영재교육원 학생 (*N*=38)	*F*	*p*
	M(SD)	*M(SD)*	*M(SD)*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	3.30(.62)	3.78(.66)	3.57(.67)	9.48	.000***
학업에 대한 만족	3.31(.52)	3.73(.59)	3.48(.64)	8.58	.000***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3.92(.73)	4.16(.72)	3.58(1.07)	5.13	.007**
교우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3.36(.60)	3.79(.60)	3.71(.64)	9.63	.000***
학교생활만족도 총점	3.47(.47)	3.87(.54)	3.59(.61)	8.62	.000***

*p<.05, **p<.01, ***p<.001

분석 결과 일반학급에서의 학교생활만족도 전체 평균은 영재학급 영재학생이 가장 높고, 영재교육원 영재학생, 일반학급 학생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 간의 일반학급에서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또한 학교생활만족도의 모든 하위 영역에 대해서도 세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는 영재아동이 사회적응(사교성, 애착, 사회적 긍정성) 수준이 일반아동보다 높고, 부적응 수준(스트레스, 욕구좌절, 편견)이 낮다는 이국행, 이영환, 김현지(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주현(1997)의 연구에서도 영재 학생들이 일반 학생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며, 교사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영재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은 영재를 선발하는 1단계에서 교사가 명랑하고, 행동이 바르고, 긍정적이며 인기가 있는 아동을 추천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Keneal, 1991).

<표 5> 일반학급에서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Tukey의 사후 검증 결과

영역	집단	사후 검증 결과(p)
환경	일반학생-영재학급 학생	.000***
	일반학생-영재교육원 학생	.000***
학업	일반학생-영재학급 학생	.000***
	영재학급-영재교육원 학생	.015*
교사	일반학생-영재학급학생	.001**
	영재학급-영재교육원 학생	.002**
교우	일반학생-영재학급 학생	.000***
	일반학생-영재교육원 학생	.002**
만족도 총점	일반학생-영재학급 학생	.000***
	일반학생-영재교육원 학생	.007**
	영재학급-영재교육원 학생	.005**

*p<.05, **p<.01, ***p<.001

세 집단 중 어떤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ukey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학급에서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영재학급 학생이 일반학생, 영재교육원 학생에 비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5> 참조). 특히 교우관계에서는 일반학생과 영재학급 학생, 일반학생과 영재교육원 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만족도 총점에서의 집단 간 비교 결과와 동일하였다.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친구는 매우 중요한 집단이며 아동 상호간의 교우관계에서 얻은 정서적 상태는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한 강선희(2008)의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한편, 영재아동의 학교생활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Gallagher & Gallagher, 1994).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과제가 주어진다면 학교생활을 지루해하지 않지만,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 과학영재학교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을 분석한 김애희(2008)의 연구에 의하면 교우관계, 교사 관계가 학교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한다. 일반학급에서 영재학급 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는 영재교육원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영재학급 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는 일반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사 및 교우 관계의 높은 만족도가 영재학급 학생의 일반학급에서의 높은 학교생활만족도를 설명한다.

일반학급에서 영재학급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하여 교사와의 관계를 제외한 환경, 학업, 교우와의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서득영(2008)의 연구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영재교육이 학교생활을 흥미롭게 만든다고 응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일반학급 내에서 영재교육원 학생은 일반학생과 비교했을 때 교우와의 관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p<.01), 학교환경, 학업 및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학급 내에서 영재학급 학생은 영재교육원 학생에 비하여 교사와의 관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p<.01), 환경, 학업 및 교우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만족도 전체 평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p<.05)를 보이고 있어, 일반학급 내에서 영재학급 학생과 영재교육원 학생간의 만족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에 대한 영재학급학생과 영재교육원 학생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구체적 원인으로 학생의 성장에 따른 정의적 특성 변화, 영재학생이 속해있는 일반학급의 교사의 유형의 차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다니는 영재학생이 모두 속한 일반학급을 비교한 연구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등의 추후 심층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영재학생의 소속 영재교육기관 생활만족도 비교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의 영재학생의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생활만족도를 일원변량분석(ANOVA)를 통해 비교하고 결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표 6>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학생의 소속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생활만족도 일원변량분석(ANOVA) 결과

영역	영재학급 학생 (N=38)	영재교육원 학생 (N=38)	F	p
	$M(SD)$	$M(SD)$		
환경에 대한 만족	4.21(.57)	3.94(.71)	3.39	.070
학업에 대한 만족	4.11(.67)	3.68(.77)	6.64	.012*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4.42(.64)	3.85(.78)	12.12	.001**
교우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4.01(.60)	3.75(.61)	3.59	.062
영재교육기관 생활만족도 총점	4.19(.52)	3.81(.63)	8.30	.005**

*p<.05, **p<.01, ***p<.001

분석 결과 소속된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영재 학생들의 생활만족도 총점은 영재학급에 소속된 학생들이 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에 소속된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영재학급 학생이 영재교육원 영재학생에 비해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생활만족도 하위 영역별로 비교해본 결과 학업에 대한 만족,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영역에서 영재 학급 학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환경 및 교우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훈육유형과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훈육유형에 따라 학교생활만족도가 차이가 있다는 강윤정(2006)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영재교육원 교사에 비하여 영재학급 교사와의 관계에서 더 만족한 것이 하나의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와의 관계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문항별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선생님은 매보다는 사랑으로 훈계하신다', '선생님은 남녀 차별을 하지 않으신다.'는 항목에서 영재학급 학생들이 영재교육원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황진숙(1995)은 교사의 역할에 따라 선호되는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라는 연구에서 학교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요인을 들었다.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에서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구체적 원인으로 학생의 성장에 따른 정의적 특성 변화, 영재학생이 속해있는 집단의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교사가 같은 프로그램을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에 적용하고 비교한 연구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등의 추후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영재학생의 일반학급과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생활만족도 비교

영재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의 일반학급에서와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동일한 대상의 평균 차이를 조사할 수 있는 대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 *t*-test)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영재학생의 일반학급와 영재교육기관에서 생활만족도 비교

하위 영역	일반학급에서의 생활만족도 (*N*=38)	영재교육기관에서 생활만족도 (*N*=38)	*t*	*p*
	M(SD)	*M(SD)*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	3.68(.67)	4.07(.66)	−4.88	.000***
학업에 대한 만족	3.78(.74)	3.90(.75)	−1.45	.151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3.87(.95)	4.14(.76)	−2.18	.033*
교우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3.75(.61)	3.88(.62)	−1.90	.061
생활만족도 총점	3.81(.63)	4.19(.52)	−8.30	.005**

*p<.05, **p<.01, ***p<.001

분석 결과, 생활만족도 하위 영역 중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 교사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소속된 학교의 일반학급에서와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생활만족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이는 영재학생들은 평소 주로 교육을 받는 일반학급에 비해 영재교육을 받는 영재교육기관의 환경 및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재학생들은 영재교육기관이 환경에 대해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잡혀 있으며, 과학실에는 실험기구의 종류나 수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어서 각자가 조작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해 보지 못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문항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속 학교 일반학급에 비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며, 전체 분위기가 조용하며 공부하기에 알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재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영재교육기관의 환경에 대해 일반학급에서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재학생들은 학교교사에 대해서 공평하고, 각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고, 각자의 고민거리를 해결하려고 하며,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학급보다 영재교육기관의 교사에 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 하위영역 중 학업에 대한 만족, 교우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은 소속 학교에서와 영재교육기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에 대한 만족 영역 문항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학급보다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실력 향상에 대한 기대(t=2.03, p<.05)', '학업의 재미(t=3.75, p<.001)'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 영역 문항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학급보다 영재교육기

관에서의 교우관계에서 만족하는 것은 '편을 가르지 않고 어울림(t=6.21, p<.001)', '힘이 없고 약한 아이도 잘 보살피며 어울림(t=5.10, p<.001)'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영재교육기관에서보다 소속된 일반학급에서의 교우관계에서 만족하는 것은 '나와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정도(t=4.69, p<.001)', '학교에 오면 어울릴 친구가 많아 즐거움(t=3.73, p<.001)'으로 나타나 일반학급에서는 개인적인 교우관계 측면에서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전체적인 교우관계 측면에서 보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문항에 따른 영재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

영재학생들의 소속 일반학급과 영재교육기관의 학교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 t-test)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영재 학생의 일반 학교와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학교환경 만족도 비교

문항 내용	일반학급에 대한 생활만족도	영재교육 기관에 대한 생활만족도	t	p
학교환경 만족도 총점	3.68(.67)	4.07(.66)	−4.88	.000***
책걸상은 공부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	4.18(.96)	4.17(1.04)	.11	.91
학급에서 좌석의 위치가 만족스럽다	3.80(1.1)	4.08(1.08)	−1.54	.13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	3.72(1.17)	4.28(.90)	−3.68	.000***
학교 주변 환경이 번잡하지 않다.	3.87(.98)	4.13(.97)	−1.87	.065
나는 우리 학교의 급수 시설에 만족한다.	3.46(1.15)	3.59(1.17)	−.71	.48
과학실 실험기구가 많아 불편이 없다.	3.53(1.39)	4.34(1.14)	−5.68	.000***
우리 학교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3.93(.88)	4.29(.76)	−3.48	.001**
학교의 전체 분위기는 조용하며 공부하기 알맞다.	3.07(1.16)	4.26(.94)	−7.87	.000***
우리 학교 건물은 안전하게 지어졌다.	4.01(1.00)	4.24(.89)	−2.03	.046*
우리 학교는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된다.	2.86(1.35)	3.66(1.18)	−4.42	.000***
등·하굣길에 교통은 안전하다.	4.03(1.11)	3.75(1.19)	2.18	.032*

*p<.05, **p<.01, ***p<.001

분석결과, 학교환경과의 관계에서는 일반학급과 영재교육기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일반학급에 비해 영재교육기관의 환경에 대해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88, p<.001)

각 하위문항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학급보다 영재교육기관에서 만족하는 것은 '분위기(t=3.68, p<.001)', '실험기구구비(t=5.68, p<.001)', '정리정돈(t=3.48, p<.01)', '학교분위기(t=7.87, p<.001)', '건물의 안전(t=2.03, p<.05)', '화장실 관리(t=4.42, p<.001)'로 나타났다.

초등 영재학생들은 영재교육기관에서 환경에 대해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잡혀 있으며, 과학실에는 실험기구의 종류나 수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어서 각자가 조작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해 보지 못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소속 학교에 비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며, 전체 분위기가 조용하며 공부하기에 알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 건물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된다고 생각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재교육기관이 일반학급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교육기관보다 자신의 소속 학교에 더 만족하는 것은 '등하교길 교통안전(t=2.18, p<.05)'으로 가정에서 소속 학교와는 거리가 가까운 반면에 영재교육기관과는 거리가 멀어서 버스를 타거나, 승용차 등 등하교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책걸상의 상태', '학교 주변 환경', '급수시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학업에 대한 만족

영재학생들의 소속 일반학급과 영재교육기관의 학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 t-test)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영재 학생의 일반 학교와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학업에 대한 만족도 비교

문항 내용	일반학급에 대한 생활만족도	영재교육 기관에 대한 생활만족도	t	p
학업관련 만족도 총점	3.78(.74)	3.90(.75)	−1.45	.151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즐겁다.	3.87(1.19)	4.03(1.11)	−.97	.337
실력이 점점 향상된다고 느낀다.	3.83(1.09)	4.08(1.00)	−2.03	.046*
학교생활이 끝나고 집에서 하는 과외활동은 부담이 없다.	3.79(1.10)	3.67(1.16)	1.20	.236
과외 활동이 실력향상에 도움을 많이 준다.	3.86(1.07)	3.91(1.02)	−.37	.713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와 준비물 양은 적당하다.	3.96(1.17)	3.80(1.16)	1.44	.153
학급보다 학원이 더 재미있다.	3.38(1.14)	3.90(1.11)	−3.75	.000***

*p<.05, **p<.01, ***p<.001

분석결과 학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급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영재교육기관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하여 더 수준이 높고 자신의 실력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만족도가 높으며, 일반학급에서의 수업보다 학원의 수업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했으며, 학원수업 보다는 영재교육 수업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틀에 짜인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는 일반학급 수업보다는 정원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실험 및 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력을 키워주는 수업을 통하여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실력이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문항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학급보다 영재교육기관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실력 향상에 대한 기대(t=2.03, p<.05)', '학업의 재미(t=3.75, p<.001)'로 나타났다.

영재학생에게서 수업 이후 내주는 과제와 준비물의 양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영재학생들의 소속 일반학급과 영재교육기관의 교사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 t-test)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영재 학생의 일반 학교와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비교

문항 내용	일반학급에 대한 생활만족도	영재교육 기관에 대한 생활만족도	t	p
교사관계 만족도 총점	3.87(.95)	4.14(.76)	−2.18	.033*
선생님은 우리를 항상 믿어주신다.	4.03(1.14)	4.04(.89)	−0.10	.921
선생님께서 쓰시는 억양, 말의 속도가 마음에 든다.	3.99(1.13)	4.18(.95)	−1.33	.188
선생님은 매보다는 사랑으로 훈계 하신다.	3.76(1.24)	4.26(.94)	−3.11	.003**
선생님은 우리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을 쏟으신다.	4.00(1.06)	3.99(.89)	0.09	.925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우리들을 즐겁게 가르친다.	3.99(1.22)	4.12(.99)	−0.79	.433
선생님은 언제나 공정하게 어린이들을 다스리신다.	3.71(1.23)	4.05(.99)	−1.98	.052
선생님은 편애를 하지 않으신다.	3.78(1.16)	4.08(1.07)	−1.78	.078
선생님은 남녀 차별을 하지 않으신다.	3.72(1.37)	4.37(.95)	−4.12	.000***

*p<.05, **p<.01, ***p<.001

분석결과,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소속 일반학급과 영재교육기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일반학급 교사에 비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사에 대해서 좀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18, p<.05).

각 하위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학급보다 영재교육기관에서 만족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대응(t=3.11, p<.01)', '남녀 간 평등(t=4.12, p<.001)'으로 나타났다.

영재학생들은 매 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학생들이며, 매는 오히려 영재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초등학생들은 학교 교사에 대해서 공평하고, 각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고, 각자의 고민거리를 해결하려고 하며,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학급보다 영재교육기관의 교사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대한 교사의 관심'에서 일반학급의 학생이 조금 높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고, '선생님의 믿음', '선생님의 말의 억양', '말의 속도', '수업 모습', '선생님의 편애'

와 관련한 문항에서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높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라. 교우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영재학생들의 소속 일반학급과 영재교육기관의 또래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 *t*-test)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영재 학생의 일반 학교와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교우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비교

문항 내용	일반학급에 대한 생활만족도	영재교육 기관에 대한 생활만족도	*t*	*p*
교우관계 만족도 총점	3.75(.61)	3.88(.62)	−1.90	.061
친구들은 나와 친하게 지내기를 원한다.	4.18(.73)	3.72(.87)	4.69	.000***
학교에 오면 어울릴 친구가 많아 즐겁다.	4.51(.86)	4.03(1.03)	3.73	.000***
성적은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	4.04(1.24)	4.34(.99)	−1.85	.068
학급의 친구들은 편을 가르지 않고 모두 잘 어울려서 논다.	2.99(1.33)	3.99(1.06)	−6.21	.000***
힘이 없고 약한 아이도 잘 보살피며 어울려서 논다.	3.16(1.34)	3.95(.992)	−5.10	.000***
친구를 사귈 때는 잘사는 아이와 못사는 아이는 관계가 없다.	4.54(.87)	4.64(.667)	−1.30	.196
학교에서는 옆 짝이 마음에 든다.	3.18(1.43)	3.99(1.22)	−4.01	.000***
좋아하는 이성친구가 있으면 학교생활이 더욱 즐겁다.	2.87(1.40)	2.46(1.34)	3.44	.001**
나의 친구는 나를 믿고 잘 따른다.	4.28(.81)	3.83(1.01)	3.76	.000***

*p<.05, **p<.01, ***p<.001

분석결과 교우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총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문항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학급보다 영재교육기관에서의 교우관계에서 만족하는 것은 '편을 가르지 않고 어울림(t=6.21, p<.001)', '힘이 없고 약한 아이도 잘 보살피며 어울림(t=5.10, p<.001)'으로 나타났다.

영재교육기관보다 일반학급에서의 교우관계에서 만족하는 것은 '나와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정도(t=4.69, p<.001)', '학교에 오면 어울릴 친구가 많아 즐거움(t=3.73, p<.001)'으로 나타나 일반학급에서는 개인적인 교우관계 측면에서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전체적인 교우관계 측면에서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성적의 영향', '친구 사귐에 있어서의 가정형편', '짝꿍에 대한 부분', '이성친구의 유무와 학교생활만족과의 관계', '친구들이 나를 따르는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영재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생활만족도 비교

과학영재의 성별에 따른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에서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일원변량

분석(ANOVA)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12>에 나타내었다.

<표 12> 성별에 따른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 학생의 영재교육기관 생활만족도 일원변량분석(ANOVA) 결과

하위 영역	성별에 따른 영재학생의 영재교육기관 생활만족도		*F*	*p*
	남(*N*=42)	여(*N*=34)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	4.05(.71)	4.10(.59)	.149	.700
학업에 대한 만족	3.89(.75)	3.90(.75)	.003	.958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4.06(.82)	4.23(.68)	.881	.351
교우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4.02(.60)	3.75(.62)	1.345	.250
생활만족도 총점	3.95(.64)	4.05(.56)	.502	.481

분석 결과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학생의 성별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생활만족도 총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개 하위 영역에 대한 차이를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이유미(2009)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대목이다. 이유미(2009)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학급 영재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와 교우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나머지 하위 영역 및 생활만족도 합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이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영재교육원의 영재학생들은 교우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을 제외하고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김무겸(2004)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이는 집단 활동에 대한 남녀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차가 없다는 Gatfield (1999)연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만족도가 더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라는 권창희(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는 남녀 모두 교사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유동훈(1999)의 연구와 일부 일치하지만, 남학생은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요인에서 여학생보다 학교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학생은 규칙준수, 학교행사 요인에서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부분에서는 일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결과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고, 본 연구의 대상이 다른 선행연구와는 달리 영재학생이었으므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재학생의 학년에 따른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의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ANOVA)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13>에 나타내었다.

<표 13> 학년에 따른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 학생의 영재교육기관 생활만족도 일원변량분석(ANOVA) 결과

하위 영역	학년에 따른 영재학생의 영재교육기관 생활만족도		*F*	*p*
	5학년(*N*=39)	6학년(*N*=37)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	4.04(.69)	4.11(.63)	.190	.664
학업에 대한 만족	3.85(.73)	3.95(.77)	.368	.546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4.02(.77)	4.26(.74)	1.913	.171
교우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3.77(.66)	4.01(.55)	2.952	.090
생활만족도 총점	3.92(.62)	4.08(.59)	1.368	.246

분석 결과 영재학급 학생들의 경우 총점뿐 아니라 4개 하위 영역 모두 6학년이 5학년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조사하였더니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초등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고학년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저학년보타 높게 나타났으나 학년 수준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원령과 이순복(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5학년이 6학년보다 학교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이유미(2009)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되지 않는 대목이며, 5학년과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 연구한 류광식(2002)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다른 결과이다. 또 5학년이 6학년보다 학교생활만족도 전체 점수 및 학교생활, 수업일반, 교사, 학교의 물리적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보고한 이은주(2003)의 연구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학년수준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년수준에 따라 학교생활만족도가 달라지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6학년이 5학년보다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처럼 고학년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6학년 프로그램 및 교사와의 관계가 더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관계를 규명하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환경, 학습, 교사, 교우에 대한 학교생활만족도를 비교와, 성별 및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더불어 영재학생 중 현재 재학 중인 소속 일반학급에서와 재원 중인 영재교육기관과의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들 간의 차이를 학교생활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전체적으로 영재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일반학생들에 비해 높았다. 영재학생 중에서도 특히 영재학급 영재학생이 '학교환경, 학업,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의 4개 하위 영역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둘째, 소속된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영재 학생들의 생활만족도 총점을 비교한 결과 영재

학급에 소속된 학생들이 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에 소속된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영재학급 학생이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 영재학생에 비해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생활만족도 하위 영역 중 학업에 대한 만족,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영역에서 영재 학급 학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영재학생 중 현재 재학 중인 소속 일반학급에서와 재원 중인 영재교육기관과의 학교생활만족도의 총점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생활만족도 점수가 소속 일반학급에서의 생활만족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p<.05). 생활만족도 하위 영역 중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영역에서 영재교육기관에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05). 이는 영재학생들이 평소 교육을 받는 일반학습에 비해 영재교육을 받는 영재교육기관의 환경 및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만족도 차이를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 학교 환경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공부의 분위기, 실험기구, 정리정돈 등의 문항에서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학업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는 실력의 향상, 학업의 재미 문항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교사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는 잘못에 대한 대응, 남녀 간 평등 문항에서, 교우와의 관계 측면에서는 어울릴 친구가 많은, 편을 가르지 않고 어울림 등의 문항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넷째, 영재 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생활만족도는 모두 평균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선행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결과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고,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이 일반학생이었으므로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의 생활에 만족스러움을 느낄 때 학생들은 학교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영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영재학생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으면 학생은 학교에서의 생활의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학교에서 의도한 교육내용을 더 깊이 내면화하게 된다. 연구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어 학교·학급의 효율성 향상과 학생의 만족스러운 학교생활 영위, 더 나아가서는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생활만족도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생활만족도 측정도구로 사용한 설문지가 .674~ .917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나, 영재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측정을 위한 체계적인 설문문항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생활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더욱 정밀하게 작성해야 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영재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여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적으로 접근한 본 연구는 깊이 있는 결과 이해 및 해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

으므로 관찰, 심층면접 등을 통한 질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질적 연구 방법의 도입으로 본 연구에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감이 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깊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볼 때 영재 학생들이 일반 학급 및 영재교육기관에서 더욱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개선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재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정신적, 심리적 강인함과 행복감, 자신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영재들에 대한 정서적 특성을 깊이 이식하고 이해해 주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 영재를 위한 배려와 환경이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강선희 (2008).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지도성 유형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강윤정 (2006).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훈육유형과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권창희 (2002). **초등학생의 학교체육활동 참여태도와 학교생활만족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김무겸 (2004). **초등학교 아동의 권리 인식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김미경 (2000).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와 그 결정요인.**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김미숙, 이희현, 임청묵 (2008). **시도교육청과 대학의 영재교육기관 효율화 방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애희 (2008).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분석.**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류광식 (2002).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가정생활만족도 및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서득영 (2008). **초등학교 영재학급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송강영, 안정덕 (2006).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민족사관고 학생들의 여가활동특성 및 생활만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4**(2), 133-140.

유동훈 (1999). **초등학교 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학교생활만족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유상구 (2000). **체육수업과 여가활동의 연계지도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

위논문. 서강대학교.

윤여홍 (2003). 영재의 지적, 정의적 특성. 박성익, 조석희, 김홍원, 이지현, 윤여홍, 진석언, 한기순(편). **영재교육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이국행, 이영환, 김현지 (2003). 과학영재아동의 적응, 자기지각,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영재교육연구, 13**(2), 73-94.

이원령, 이순복 (2008). 영재아동의 자아개념과 사회적 능력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1), 169-189.

이유미 (2009). **담임교사의 의사결정유형과 초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이은주 (2003).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행동과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이주현 (1997). **영재아의 학교적응과 사회성숙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임명숙 (1997). **초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임형철 (1992). **영재아의 학교 적응에 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황진숙 (1995). **교사의 역할에 따라 선호되는 특성과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홍정민 (2009).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중학교 영재교육 대상자의 인식 조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Bean, J. P., & Bradley, R. k. (1986). Understanding the satisfaction-performance relationship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7*, 393-412.

Boazman, J., & Sayler, M. (2011). Personal well-being of gifted students following participation in an early college-entrance program. *Roeper Review, 33*(2), 76-85.

Brookover, W. B. (1975). *Sociology of education*. IL: Dorsey.

Gallagher, J. J., & Gallagher, S. A. (1994). *Teaching the gifted child*. Boston: Allyn & Bacon.

Gatfield, T. (1999). Examining student satisfaction with group projects and peer assessment.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24*(4), 365-377.

Huebner, S. (2010). Feelings count: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students' happiness in schools, *Communique, 39*(4), 1-13.

Kagan, J., & Havreven, K. K. (1978). *The family*. New York: Norton Co.

Keneal, P. (1991). Teacher expectation as predictors of academic succes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305-306.

= Abstract =

Gifted Stud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in General Schools and Educational Institute for the Gifted

Sung-Shin Cho

Mabuk Elementary School

Mi-Hyun Yoo

Ajou University

Sang-Ihn Yeo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of the gifted students with general students.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on school life satisfaction was conducted to 76 elementary gifted students and 125 general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at the general clas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It was found that the gifted students showed a little higher school life satisfaction score than the general students' ($p<.05$). The score of gifted class stud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Second, the score of gifted class stud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gifted education institute students' ($p<.05$). Third, school life satisfaction score of gifted students in a gifted clas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a general class ($p<.05$). Forth, regarding the gifted students' gend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irls and boys. Regarding the grades of the gifted stud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5th and 6th grader ($p>.05$).

Key Words: School-life satisfaction, General class, General students, Gifted elementary students, Gifted class, Educational institute for the gifted

1차 원고접수: 2011년 4월 13일
수정원고접수: 2011년 6월 15일
최종게재결정: 2011년 6월 16일